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2년 5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자료 문의>
· 지식경제부 박종원 행정관리담당관(02-2110-5241), 김수은 주무관(5130)
· 지식경제부 이원주 기업협력과장(02-2110-5166), 안진호 사무관(5636)
· 지식경제부 나기용 에너지절약정책과장(02-2110-4872), 김정대 서기관(4873)
· 지식경제부 경자단 이홍열 산업물류투자팀장(02-2110-3878), 김동일 사무관(3881)

지경부,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 지원 정책 강화

- 중견기업정책관(국장급) 및 하부 3과 신설 -
- 에너지절약추진단 존속기한 1년 연장 -
- 김제·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신설 등으로 조직개편 단행 -

※ 「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직제 시행규칙」 공포·시행(5월1일)

< 중견기업정책관 신설 >

□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체계적, 종합적으로 수립, 추진할 중견기업정책관을 산업경제실내에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중견기업정책과, 혁신지원과, 성장촉진과 등 3과를 설치함

□ 중견기업은 '10년말 현재 총 매출 350조원(11.9%), 수출 592억불(12.9%), 고용 80.2만명(8%)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새로운 중추로서 대두되고 있었으나,

○ 그간 과 단위 조직(지경부 기업협력과)으로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걸맞는 체계적, 종합적 육성 정책을 수립,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

* '08~'10년간 중견기업은 매년 4.3만개의 일자리 창출 (대기업 매년 2.7만개 수준)
* '08~'10년간 중견기업 수출증가율(%, 연평균) : 12.84% (총수출 증가율은 7.88%)

□ 이번에 신설되는 중견기업정책관의 중점 업무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적·제도적 요인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,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임

○ 이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육성 인프라를 확충하고,

- 지경부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인센티브를 성장 촉진형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「중소→중견→대기업」으로 원활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임

< 중견기업정책관내 과별 주요 업무 >

과 명	주 요 업 무
중견기업 정책과	· 중견기업 육성 시책 총괄 · 중견기업 관련 법령 총괄 운용, 중견기업 지원사업 예산 및 성과 관리 ·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시책 수립·추진, 중견기업 육성·지원위원회 운영 · 사회적 책임 경영지원, 하도급 분야 등 동반성장 대응 · 중견기업 경영 혁신 및 지배구조 개선 · 부처간 중견 기업 정책 조정, 중견기업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조
혁신지원과	· World Class 300 등 중견기업 기술 혁신 및 해외진출 정책 수립 추진 · 전통·내수형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시책 수립 · 중견기업 금융, 세제, 입지, 투자 등의 중견기업에 육성 시책 수립 · 중견기업 인력·고용 시책 수립
성장촉진과	· 중견기업 성장 환경 조성과 성장촉진을 위한 시책 총괄 · 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 · 중견기업의 M&A, 합병, 사업다각화 등 성장 모델의 개발 ·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·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성장촉진형으로의 개편에 관한 사항 · 중견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의 도입·운영

□ 지경부는 중견기업 육성 전담조직을 마련함에 따라 빠르면 5월중에 중견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'15년까지 120만개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,000개('10년말 현재 1,291개) 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

□ 한편, 현 정부들어 중견기업의 수는 전에 비해 두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 중

○ '08~'10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총 380개사로 ('03~'07년간은 287개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) 고용 3.5만개 신규창출, 매출 16.3조, 수출 23억불이 이들 기업을 통해 순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, 380개 기업중 제조업이 131개사로 자동차(20개), 전자·통신기기(14개), 기타기계(15개) 등에서 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 에너지절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>

□ 금년 7.16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함.

○ '09.7.16일 3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은 그간 에너지절약 문화의 확산, 에너지사용 효율 제고, 온실가스 저감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

○ 고유가 지속, 전력수급 위기 등에 따른 '에너지 위기 일상화'에 적극 대응하고, 전세계적 과제로 추진중인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함.

< 김제·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신설 >

□ 현재 마산, 군산, 대불, 동해, 율촌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확대하여 김제, 울산 등 2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함.('12.8.1일 시행)

○ 올 하반기 중 개원할 김제와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해당 지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고, 입주기업의 각종 민원처리 등을 근거리에서 수행할 예정임.

※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물류활동이 자유롭고, 관세가 유보되어 수출에 유리하며, 저가로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대받고, 각종 세제가 감면 되는 지역임